



전라북도 교육청 김창영 학교보건과장

1979년도 교육청에 몸을 담은 김창영 학교보건과장은 누구보다도 “학생 건강 향상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특히 그는 '94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 교육청 예산으로 전라북도 관내 국민학교 1학년생 대상의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소견자를 조기발견, 치료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는데, 이 검사사업은 각 시·군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양호교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. 그러나 김과장은 “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므로 어릴 때부터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”며 겸허하게 반문해 건강검사기관인 건협으로서도 김과장은 학생 보건 향상 열의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는 또, 앞으로 검사대상과 검사종목을 확대하여 보다 건강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.

추천인 : 남 상 도 (건협 전북지부사무국장)